

2022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묵상집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요한복음 12:27

Yang nance, 2021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요한복음 12:27

| | |
|---------------------------------|----|
|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영적 순례의 길을 나서며 | 04 |
| 주제 성구 | 06 |
| 주제 해설 | 08 |
| 묵상집 사용 안내 | 11 |

12

재의
수요일

16

사순절
첫째주일

23

사순절
둘째주일

30

사순절
셋째주일

37

사순절
넷째주일

44

사순절
다섯째주일

51

종려주일

52

고난주간
현장기도

63

부활주일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그리스도교는 특별한 시간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것이었다가 계절의 변화와 같이 재현되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의 한 점, 즉 카이로스(kairos)라는 특별한 시간 이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죽음의 때가 이르러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교의 가장 특별한 시간에는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역설에 대한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에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인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기는 계속 반복됐지만,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대확산, 기후 위기, 정의의 상실, 인간성의 파괴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섰습니다. 특별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시에 특별한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심히 ‘괴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내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금긋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타개는 이웃을 위해, 자연을 위해 나의 공간을 열어주는 ‘괴로운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할 “이 때”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시대의 십자가를 선택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척 괴로웠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을 저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각 속에, 신앙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장 만 희
총 무 이 흥 정

창세기 8:20-22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 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53:1-5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요한복음서 12:23-27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요한복음 12:27

정경일 | 새길교회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후 세 번째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맞기와 같은 재난 생활이 자연스럽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언젠가는 종식되거나 풍토병으로 약화될 겁니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요구하는 삶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산업성장문명의 한계와 폐해를 드러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생태문명, 돌봄사회로 전환해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만들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 도사리고 있는 탐욕의 관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팬데믹 와중에도 우리는 ‘영끌’을 하여 주택, 주식, 암호화폐에 매달렸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코로나23’, ‘코로나25’, 아니면 더 파괴적일 ‘기후재앙’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악하다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창 8:21)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최소한 팬데믹 재난에 대해서 만큼은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도 자연의 보복도 아닌,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아 발생한 인간의 ‘도덕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자연의 길은 ‘우주적 돌봄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재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각자도생과 경쟁의 길을 멈추고 더불어 생명의 길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돌아설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인간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때에 괴로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받을 모욕과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마저 바치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당신이 뿌리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괴로워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확신하실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도 답을 주시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이 ‘될 일’이어서가 아니라 ‘할 일’이어서 예수님은 용기있게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프레드릭 류크너는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신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바라는 전환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 ‘이 일’ 때문에, 곧 하나님의 길과 자연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당신을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2022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목상집은,

-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준비하였습니다. 전지구적 재난이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성찰하여, 용기있고 신실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순례를 통해 이 시대 부활과 새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성경은 ‘새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 목상집의 형식은 ‘제목-성경-목상글’입니다.

목상집을 적절히 활용해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게,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상집 제작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지그림

양나희
화가

집필진

정금교
누가교회

정경일
새길교회

임의진
순례자
복음교회

정주진
평화갈등
연구소

하나님 나라의 입구

누가복음서 5:4-6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베드로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불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지시했던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에는 스스로 과도한 보상을 누릴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베드로는 이렇게 꿈조차 가난합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만 해도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루 일해서 하루 양식을 살 수만 있으면 됐다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한 지평에서 연결되었을까요?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은 아들의 죽음을 다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한 마지막 제단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야 영결식을 했지만 결코 둘러간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건 십자가의 지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리는 이가 없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만들어 낸 길, 베드로가 남루한 자신을 발견하고 엎드려 버린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가난한 이들의 떨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떨림을 야망으로 대체해 버린 탓에 일찌감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집중하라

요엘서 2:28-29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요엘은 전제군주 시대의 한가운데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곧이어 평등과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비천한 자들이 귀족들과 동등한 시대가 오며 종이 주인과 동등한 시대가 열린다고 예언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소리를 하며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이란 먼 미래의 아무도 꿈꾸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요엘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꿈을 꾸며 선언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소망이 생기고 다른 세상을 꿈으로 갖게 됩니다. 요엘은 자기 세상에서 참혹한 불평등 현실을 보았던 것이니 그의 눈물과 분노와 사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세상에 대한 집중입니다. 집중해서 불평등과 아픔과 불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하고 분노하며 다른 세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아팠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였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집중한 사람들은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발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기까지 집중해야 우리는 답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빼먹은 철근

에베소서 6: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베트남에선 사랑이란 말의 ‘띤깜’(Tinh cam)이 있는데 감정, 이해, 느낌을 ‘차차’ 갖는다는 뜻입니다. 운명적인 사랑 ‘두이엔’(duyen)과 대조되는 감정입니다. 운명적인 감정은 또다른 운명을 만나면 휘 흔들립니다.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사랑이 훨씬 강하지요.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마 12:35) 과연 무엇을 쌓아올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붕괴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높이려고 설계대로 짓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철근을 빼먹거나 자갈과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 불량 레미콘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이 이른바 ‘하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빼먹은 철근은 건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이후엔 입주자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재빠른, 기한이 단축된, 운명적인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굳고 마른 뒤에 위층을 쌓아올려야 합니다. 저울을 속이는 짓으로 얻은 이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아 빼앗으실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 집 화롯가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남의 집 뜰에서 따와서는 안된다.” 더글라스 제럴드 작가의 말입니다.

누룩이 되는 삶

마태복음서 13:33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 그러니까 효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양은 아주 적습니다. 밀가루 250g에 필요한 효모는 4g 정도에 불과합니다. 효모와 함께 물도 필요합니다. 빵의 기본적인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소금과 적당한 양의 설탕도 필요하지요. 그래도 핵심은 효모입니다. 효모가 없으면 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효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효모가 다른 재료들, 그러니까 물, 소금, 설탕 등과 잘 섞여야 합니다. 효모가 잘 발효되려면 적당한 온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죽이 잘 부풀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빵이 만들어집니다.

평화학자인 존 폴 리더락은 사회 변화를 위해 효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사회 변화의 동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밀가루처럼 양은 많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결속하고,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물, 소금, 설탕과 같은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는 효모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또 적당한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적 환경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효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효모가 되어 줄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온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효모가 되고, 효모를 발효시키는 온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구별 스테이

마가복음서 12:32-34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대면예배를 금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한창 방역 위반 교회들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을 때, 한 목회자가 쓴 글이 화제가 되었죠. 코로나19 시대에 지구별 스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지혜이자 질서이죠.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은총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나 편하고 나 먼저 살자는 건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희생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거리두기를 하고 목숨처럼 귀히 여기던 대면예배까지도 뒤로 미루면서 국가적 방역에 협조하는 겁니다.

창조의 창(創)에는 상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상처를 감쌀 때 쓰는 반창고에도 이 ‘창’을 같이 사용합니다.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새로운 좋은 게 탄생할 수 없죠. 사랑도 물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는 세월이 어디 있을까요. 다만 이 어려움의 끝에 보람차고 달뜬 회복과 재건의 미소가 번지기를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과 사회적 돌봄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여성이나 사회 주변부 사람들이 전담하는 사소하고 부차적인 일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의 필수성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주고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기로 태어나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는 혈연 자녀와 부모, 지역과 사회의 아이와 노인을 돌봅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조안 트론토는 “모든 인간은 한 번쯤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돌봄의 수혜와 제공이 어찌 한 번뿐일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늘 돌봄을 주는 존재이며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취약한 존재인 우리 모두는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돌보는 인간’입니다. 서로를, 특히 우리 안의 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삶

마태복음 5: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2020년 3월에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한 태국 학생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여권을 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당황해서 그냥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던 때니 '한국에서는 여권을 보여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분노와 의심이 컸습니다. 식당 주인은 중국인처럼 보였던 태국인에게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사이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덩달아 마음의 거리도 생겼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나 특정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감정이 번졌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팬데믹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사람들은 불안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을 더했습니다.

평화는 곧 평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삶은 관계가 평화로울 때, 즉 개인 및 집단 사이에 서로를 억압하고 해하는 폭력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이뤄집니다.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한다면 그 관계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평화를 얘기할 때 세계나 사회 차원에서의 평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 일상 곳곳에 필요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차별과 폭력을 없애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것이 곧 평화를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수자의 얼굴로 오십니다.

마태복음서 25:40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여러 얼굴을 가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다른 얼굴로 상상합니다. 가장 진부한, 그래서 그만큼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얼굴은 아마도 파란 눈에 금발 머리를 한 ‘백인 남자’의 얼굴일 것입니다. 근엄한 제왕이나 위압적 정복자의 얼굴을 한 서양인 백인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시아인인 우리에게도 낯익습니다.

익숙한 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진짜 얼굴과 가장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다른 얼굴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식별의 기준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예수님의 얼굴은 배제된 자, 차별받는 자, 혐오 당하는 자, 소수자의 얼굴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존의 세계

누가복음서 16: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험오스러운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팬데믹이 이렇게 심각하고 길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세계인들의 교류는 대폭 줄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각자가 사는 곳에서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고통을 나눴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경은 닫혔지만 우리는 세계가 공동운명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몇 달 만에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고, 인도에서 생긴 델타 변이와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이로운 생명력에 우리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는 도전을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인명 손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고 1년도 안 돼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단절과 노골적인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개발된 백신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독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3차 접종까지 하는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국가는 의료진 접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 종식을 위해 균등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백신 독점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생겼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공동운명체임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평화적 공존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 잘될 거야

마태복음서 25: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미얀마는 작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항쟁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 중에 총상을 입고 죽은 19세 소녀 치알신이 입고 있던 옷에 적힌 글 "Everything will be OK."(다 잘될 거야)는 절망의 어둠 속에 출렁이는 아침 햇살같은 글귀였습니다.

군대를 막기 위해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안 로사 누 따웅 수녀의 인터뷰를 읽었어요. "전에는 종교간 부족간 차별이 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아 사회에서도 기회를 얻지 못했죠. 하지만 군부 쿠데타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전처럼 종교, 부족,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는 대신, 모두 한 가족이며 형제자매된 공동체라는 생각이 자라는 것 같아요. 서로 연대해서 함께 일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지난 세월 군부의 압제로 국내 실향민이 된 부족들에 대한 연민도 생겨났고요. 다른 사람 안에서 좋은 면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피흘리면서도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민주항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서 11:17

...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

8년쯤 전에 일본 친구의 초청을 받아 평화 워크숍을 진행하러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섬에 있는 작고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지역 노회가 주관한 평화 워크숍은 그 교회의 작은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의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며칠을 더 머물렀는데 어느 날 교육관에서 한 청년이 오르간을 연주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도시에서 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어 돌아온 청년인데 가끔 와서 오르간을 연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농촌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서 누구든 원하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와서 위안을 얻고 기도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소속된 신자들만의 공간입니다. 외부인들도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자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동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누구나 원할 때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교회 주변에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치지만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가 쉬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쉬고 기도하는 곳이 될 수는 없을까요?

잘 보고 듣는 교회

마태복음서 13: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평화에 관해 청년 십여 명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평화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동체가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공동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억압, 강요, 간섭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공동체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는 나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모두의 목소리가 인정받으며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진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인해 나쁜 기억이 떠오른다는 말에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청년은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지원의 대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모두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결정된 것을 따르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하고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염려한다고 하면서 의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건 모순입니다.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곳이 아니길 바라 봅니다.

밝은 얼굴, 좋은 소식

잠언 15:30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낮게 한다.

신앙과 삶의 지혜를 담은 <잠언>이 수집되고 편집된 시기는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수백여 년이라고 합니다. 까마득한 시간의 강을 흘러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잠언을 읽노라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 느끼는 것, 바라는 것이 비슷해 재미있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도 우리처럼 마음과 삶이 고단했을까요. ‘밝은 얼굴’, ‘좋은 소식’에 기쁨을 얻고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 집니다. 밝은 얼굴에는 기쁨을 일으키고 퍼트리려는 힘이 있습니다. 턱 낮은 스님은 “기쁨이 미소의 원천이지만, 때로는 미소가 기쁨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친 서로에게 진심을 담은 다정한 눈빛과 따스한 미소로 이렇게 말해 보면 어떨까요? “잘 지내요?” “요즘 마음이 어때요?”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엄마 기도의 응답

사무엘상 1:10-11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스스로의 자괴감과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낼 수 없는 혼자만의 문제였기에 그녀의 기도는 소리 없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나처럼 기도하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나는 어둠 속에서 윗목을 이리저리 구르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깰까 봐 소리도 없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은 길었고 자식 넷을 데리고 빚을 내고 되갚기를 반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일상의 제 문제들은 엄마 몫이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했던 엄마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와 손자를 비롯해 아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사장을 만났을까, 한나처럼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88년간의 삶 어느 지점에서 평화를 얻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엄마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언제나 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녀들이 술 취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엄마도 소리를 삼키며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주목하셨듯이 말입니다.

오우무아무아(Oumuamua)

요한복음서 19:15-16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오우무아무아’는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낯선 이방인은 소수자로 지목되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지요. 순례자로 떠도는 예수님을 본 유대 정착민들은 오우무아무아라고 경계하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자가 될 때 안도감을 느끼고 소수자가 되는 것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이유로 원치 않게 소수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는 예가 그렇습니다. 다수자와 소수자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수자가 되었다가 소수자가 되곤 하는 거지요. 주님을 죽인 당대인들과 권력의 시선이 바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습니다. 오우무아무아를 향한 행짜(심술을 부려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의 결과 공동체는 지속되기 어렵고, 차별의 논리는 상대를 바꿔가며 확장됩니다. 언젠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개방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와 관용에서 비롯됩니다. 스페인어엔 ‘사랑하는 이’에게 내 사랑(Mi amor), 내 하늘(Mi cielo), 내 생명(Mi vida)이라고 하는데, 오렌지 반쪽(Media naranja)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 반쪽으로 여기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나와 다른 낯선 이방인도 잃어버린 내 반쪽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가족의 탄생

마가복음서 3:33-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시기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은 시대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정보와 상품 중에서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고독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의 극대화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에서 단단해지는 길은 주체적 존재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 인간이라야 개인의 주체가 가능합니다. 철학이 부재한 군중의 위험은 슬하게 보았던 터입니다.

오늘 읽은 성서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며 누이냐고 묻습니다. 겪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인류사회는 언제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원했고 예수님의 선언은 언제나 이와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빌붙지도 말고, 위임하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자기다움을 되찾으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나라입니다. 예속되지 않는 자유와, 비겁하지 않는 주체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이들의 연대인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고독한 삶으로 내몰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발견하는 눈이며, 새로운 가족으로 연대해 나가는 삶입니다.

‘으바리’의 지혜

마가복음서 13:1-2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시골 살던 제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굉장했을 겁니다. 고대부터 거대한 건축물은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규모와 장식에 놀라 감탄하는 일은 권력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태도는 권력 너머였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는 큰 건물의 무너짐 곧 권력의 몰락이 보이고, 무너진 그 너머에 다시 일어서는 새 세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난은 연이어 올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미움받고 버려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을 새로운 지평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눈을 현재에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충청도 동무로부터 ‘으바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어리석고 좀 모자란다는 뜻이었는데 ‘내가 으바리로 살았더라면 더 좋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척, 지지 않으려고 날선 태도를 지녔던 날들이 참 부질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를 높여주고, 잘한다 말해주고, 나는 아래쪽에서 조용히 머물렀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후회됩니다. 나이 들고 보니 이제야 조금, 아주 조금 알게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나를 세우는 대신에 물러나 있었다면 그 너머에도 계시는 주님을 보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참 평화를 알았을 터인데, 참 아쉬운 삶입니다.

하염없는 신뢰

마가복음서 4: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프랑스 혁명을 그린 대표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 가운데, ‘폭풍 속에 잠든 예수’(1853)는 볼수록 흥미롭습니다. 노 젓기를 멈추고, 손을 들어 균형을 잡고자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뱃고물은 물이 들이치면 맨 먼저 가라앉을 곳 이죠. 어부 출신들도 겁먹고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비명을 지르고 있고 “스승님! 곧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성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팔로 베개를 삼고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성서에 담긴 이유는 ‘자연재해를 제압하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달고 싶어서일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한 장면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비롯해 이 배에 오른 모두는, 같은 공동운명체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흥분하여 잘못 생각했다가는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겁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쪽잠을 주무시다 일어나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오직 한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입니다. 인간관계도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설 때, 재난 상황에서도 허둥대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의지와 믿음, 신뢰를 갖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곳에서나’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빌립보서 3:13b-14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의 설교를 자주 들으며 신앙생활에서도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헌신하려고 몸과 마음이 분주했지요.

그런데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이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남보다 낮아지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에서만은 1등 하라고 다그치실까요? 소설가 박완서는 1등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지 한참 뒤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한 마라토너의 달리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열렬히 응원합니다.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이십 등, 삼십 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박완서,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중에서)

1등이 아니라 다만 목표점을 향해, 최고가 아닌 나의 최선으로, 환호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달리기 아닐까요.

청년을 존중하는 용기

디모데전서 4: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나온 참된 아들’(딤후 1:2)이라고 불렀으니 당시의 통념으로는 연소자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젊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쓴 것을 보면 1세기 교회도 오늘의 교회처럼 젊은이의 리더십을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와 영성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일구셨을 때 예수님의 나이는 삼십 대 초반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도 위대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교신과 함석헌이 “성서조선”을 창간하고 조선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을 때 두 사람의 나이가 27세였고, 마틴 루터 킹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이끌며 흑인 민권운동의 전국적 지도자로 부상할 때 나이가 26세였습니다. 그들의 예언자적 이상과 실천도 놀랍지만, 젊은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른 그 시대의 교회가 더 놀랍습니다.

지난해 독일개신교협의회(EKD)는 25세 청년 여성 안나 니콜 하인리히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인리히는 젊은 자신을 의장에 선출한 교회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한 주요 교단의 총회에 참석한 총대의 평균 나이는 62.2세였고, 청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리더십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젊은이를 신뢰하는 용기를 ‘다시’ 내야 하지 않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서 9:35b-37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꺼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꼴찌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권력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암묵적인 구조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나이 성별 힘 재산 직위 학력 기득권 등 세밀하고 복잡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차별과 억압의 모양과 내용이 달라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를 뿐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꼴찌 메시지는 아래로부터의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가치 체계를 부인하고 이를 해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만든 세상,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득세하여 선한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세상에 대해 반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친절하게도 세상을 뒤엎는 그 엄청난 일을 너무도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쉬운 일을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를 반가이 맞아 주는 것, 현대신학에서는 이를 거창하게 ‘환대’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는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를 먼저 기억하고, ‘사람들의 세상’, ‘첫째가 섬기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데서부터 이미 시작된 뒤집어진 가치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감당하겠다고 나서기만 한다면야 팬데믹이든, 생태 위기가든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겪는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마태복음서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2021년 12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지만 빈부 격차는 훨씬 심각합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한 해 평균 소득은 10배나 차이가 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9배보다 높습니다. 국가의 부는 늘고 경제가 발전해도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빈곤층을 없애는 전통적인 방식은 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은 눈앞의 어려움을 완화할 뿐 빈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빈부 격차를 야기하는 부의 축적 방식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경제활동 덕분에 부를 축적합니다. 한 사람의 부의 축적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야 하고, 축적한 부는 함께 일한 사람들과 공정하게 나뉘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에 투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경제활동의 방식을 바꿔야 빈부 격차를 줄이고 빈곤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생산, 소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의 양심으로 자신이 윤리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의 빈곤을 심화시키지는 않는지, 부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주목하기

마가복음서 12:41-42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렵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본받지 말라 가르치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성전의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사람을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내면에 주목하며 참모습을 읽어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3년째 불안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울과 무기력과 그리움이 만성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권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 봅시다. 사람의 행동과 그의 소망과 기도에 귀 기울이고, 그가 처한 정황과 삶의 맥락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재난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을 발견할 지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대세인 요즘은 통계와 정보의 빠른 유통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힘이며 희망이라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일,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재난 속에 있는 지금 우리가 회복해 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말과 말 사이

잠언 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일상적으로 편지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도 때때로 속마음 담아 편지를 보내곤 했지요.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장 설렘던 시간은 답장을 기다리거나 쓸 때였습니다. 편지의 속성상 빠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천천히 깊게 사유하고 성실히 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메신저가 연락과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말과 말 사이에 사유의 시간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만 할 뿐 생각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과 글로 서로의 맘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의 시간만큼은 아니어도, 말과 말 사이에 깊은 침묵과 사유의 시간을 갖는다면, 속도(速度)가 아닌 심도(深度)를 소통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문자 하나도 깊이 생각하고 나누면 어떨까요?

아침 인사의 소중함

마가복음서 1:3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초보 일용직 노동자들은 보통 직업소개소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더 이른 시간에는 빌딩청소부나 환경미화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버스 운전노동자들은 새벽 출근버스를 일으킵니다. 철도 노동자들도 물론 이고요. 이른 아침을 깨우는 수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추운 컵물을 닦으며 정답게 인사합니다. 새들도 당신보다 먼저 깨어 창문에 앉아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부모님 모두 병원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맞는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간밤에 별 탈 없이 아침을 맞는 일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구나,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아침 인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앓아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일어나 음식을 내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여기서 열병은 그리스어 쾰레토스(πυρετός)를 씁니다. 코로나19가 돌자 음식점이나 성당, 예배당까지도 방문객의 열을 잽니다. 발열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환자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선 무슨 조치라도 하게 됩니다.

‘부온조르노!’하면서 인사하던 로마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잘 깨어 일어나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부온 비아쥬!’ 좋은 여행 하시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침 인사를 나눕시다. 병실의 환우들에게도 아침 인사를 나눕시다. “어머니, 배고프네요. 어서 일어나 빵과 밥을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내 눈 속의 들보

누가복음서 6:41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1987’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 힘들게 싸우고 그로 인해 많은 이가 희생됐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의 큰 역할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성인은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도 게을리하지 않죠. 우리가 사회적 가치이자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민주시민은 직장, 공동체, 마을 등 사회 곳곳에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죠. 신앙인과 민주시민의 정체성은 충돌하지도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시민의 정체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보완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성서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영적 생활을 하고, 민주시민의 정체성으로 사랑과 배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내 모두의 행복과 공존에 기여하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구조와 문화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과 민주시민의 정체성이 결합하면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고 공동의 성찰, 논의, 결정이 이뤄지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주 절실하고 시급한 교회의 변화입니다.

종전선언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서 6:14-15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대한민국은 휴전과 종전의 가운데 시대에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에 이은 전쟁의 시대는 멈췄으나 아직 평화의 시대는 시작하지 않은 그 가운데입니다. 이런 사이 시간에 대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학자는 ‘인터레그넘’(interregnum)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권력의 공백 상태, 즉 왕이 죽고 아직 새 왕은 등극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시대 사이에 있는 인터레그넘은 다른 무엇인가가 출현하기를 준비하는 시대인데 가장 큰 위기는 국가적 파시즘의 출몰이라고 그람시는 지적합니다. 이 불행한 예측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군사 독재 정부를 통해 겪었습니다. 이 사이 시간에 69년 동안이나 갇혀 있습니다.

옛 시대를 벗어나 새 시대로 가는 분기점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자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납니다. 아예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평등이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인권(의 보장)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 기도하고, 새롭게 열어갈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의 시대

요한복음서 18:37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은 가짜뉴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세속 권력을 차지하려 다니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선전한 일은 없었지요. 채찍으로 고문하며 묻자 ‘당신이 말한 대로 하자면 왕이겠지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한 답변에 별때처럼 달려듭니다. 기자들은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탐사 취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백했다느니 유대의 왕이라 했다느니 기사를 내보냅니다. 가짜뉴스는 꼬리에 꼬리를 뭍니다.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바일 무한 정보의 시대입니다. 여기엔 가짜뉴스(fake news)가 상당 부분입니다. 차라리 가짜뉴스는 양반입니다. 허위뉴스, 나쁜뉴스는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해 확대 생산합니다. 언론의 상업화는 주 수입원인 광고주들을 의식합니다. 재미와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기사들은 결국 정치에 신물이 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듭니다. 지성인의 부릅뜬 눈을 지긋이 감게 만들고, 그 무관심과 정치 혐오, 빈자리의 이익을 노리는 것이 바로 황색언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바람서리 별바람이 사납게 불어도 진실을 붙잡고 서야 합니다. 찬 발에 곱찬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짜뉴스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었습니다. 말꼬리 잡기, 왜곡 보도는 황색언론의 장기입니다. 그들은 죽임, 멸망을 물고 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림, 희망을 가져옵니다.

정의와 평화의 관계

시편 85:10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평화는 긍정적이지만 오염되기 쉽습니다. 평화의 오염은 평화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의도적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평화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고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잘못을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평화의 오염은 크고 작은 공동체와 사회 모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마을, 회사 같은 공동체에서는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흔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해자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잘못을 규명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공동체를 위해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평화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목적은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기회를 주고, 나아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과 사랑의 만남이고 정의로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 통합이나 평화를 위해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반드시 정의, 특히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된 이후에 피해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가 없는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꿈꾸며 꾸준히 가야 할 길

마태복음서 7:8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한이 70년 이상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땅입니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끊임없이 무기 경쟁을 해 왔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은 핵무기만 없을 뿐 다른 최첨단 무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프랑스, 영국을 따돌리고 군사비 지출에서도 세계 10위입니다. 북한의 순위는 28위로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놀라운 순위입니다. 남북한의 무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한은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고 군사적, 정치적 대립 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화는 단절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정말 가능할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계속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안전한 현재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남북 대화의 재개와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를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꿈을 키우고 나은 미래를 위한 실현 방법을 모색합니다.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후의 한반도 모습, 그리고 남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상상력 말입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실현을 위해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숙명입니다.

대항발전(counter development)

마태복음서 26:37-39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진정한 진보는 보태기의 진보가 아니라 빼기의 진보라는 말이 부쩍 와닿는 요즘입니다. 생태적 삶이란 빨셈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대항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온갖 인간 중심 문명의 산물들, 과학 기술에 의존한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빼기의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은 풍요롭고 편리한 것 같아도 무언가 불안하고 늘 쫓깁니다.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많은 ‘야생 능력’을 잃은 때문이지요.

인간을 나타내는 말로 보통 라틴어 ‘Homo’를 사용하는데,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등은 여기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호모는 그리스어 호모스(ὁμός)에서 온 말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끝없이 기계에 몸을 결합해 ‘안드로이드’(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행동을 하는 로봇)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손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같다’를 확인하려 하죠.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기후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대항발전’의 싸움은 ‘깨어 있음’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나는 슬퍼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며 깨어 계세요.” 켓세마네의 당부와 기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신경, 관심을 끊고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내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서 겪을 운명이라는 뜻이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는 없을까요? 함께 대항발전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신명기 4:7a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고 어디 멀리 다른 곳에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제야 기억하시고 획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숨 쉬는 것도 기도가 되고, 침묵도 기도가 되고, 따뜻한 말과 미소와 손길도 기도가 됩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자기건축

유다서 1: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건축한다, 참 멋진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눈에 보이는 현실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건축이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건축은 설계, 기초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삶의 결단과 믿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건축가 승효상은 우리 선조는 ‘건축’이라는 말 대신 ‘영조’(營造)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지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승효상은 짓는다는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생각과 뜻과 마음을 통하여 전혀 다른 결과로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집을 짓는 것은 “사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건축가의 성찰이 구도자의 기도처럼 경건하게 들립니다.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창근 목사도 “자기 건축의 도(道)는 예수와 같이 감성과 이성을 선히 조화융합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재료 삼아 꾸준히 좋은 삶을 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써야 할 자기 건축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졌을까

요한복음서 20:27-29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경험에 기초한 자기 지식과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단정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조차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만져 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 그 몸짓으로 이미 예수님을 알아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너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큼니다. ‘내’ 경험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의 음성과 태도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차립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으니 내 앞의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 정의

마태복음 12:20-21

“정의를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 변화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기후 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의 강도를 줄이고 대재앙의 때를 늦추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됐고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책임이 밝혀진 뒤에도 온실가스는 대폭 감축되지 않아 결국 기후위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저야 할 책임이 다릅니다. 선진국들과 한국 같은 선도적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고 빈곤국들은 아주 적게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빈곤국들이, 그곳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이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정의가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대응의 양극화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은 대응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은 대응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은 섬나라들은 몇십 년 후에는 물속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자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조금 배출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즉각 피해에 노출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대응의 양극화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다면 기후 정의가 부재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감사한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물음이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왜’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해서, 사랑받을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리처드 로어 신부는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변화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요 17:23).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는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받은 질문

요한복음서 18: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여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무려 대제사장들이 넘겨준 죄인이나 큰 사고를 친 게 분명한지만 빌라도로서는 그의 잘못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기에 죄인으로 넘겨졌을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로서는 그와 공범이며 중범인 셈이라 그의 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권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어난 이유도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유일하거나,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함으로써, 진리는 다른 지평이며 다른 생각, 다른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는 ‘빌라도, 너의 자리는 어디냐’는 질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질문자의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빌라도, 너는 진리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사람은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처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떡할까요? 나는 진리의 지평에 예수님과 함께 있나요?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하게 이끕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로서는 알턱이 없겠지요.

‘탈분단적 마음’

에스겔서 36:26(공동번역)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내년 2023년은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전(終戰)이 아니라 정전(停戰)입니다. 한국전쟁 후 7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오랜 적대의 상처를 남긴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는 공동운명체성을 깨달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은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땅만 분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분단했습니다.

탈분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학자 김성경은 국제정치적 지형 변화만이 아니라 남북 사람들의 ‘분단적 마음’을 ‘탈분단적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진정한 탈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남북 주민이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분단적 마음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즉 서로를 향한 적대와 혐오를 공감과 연대감으로 전환하는 일일 것이다.”

탈분단적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 즉 분단적 마음을 탈분단적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공동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

사도행전 4: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공동의 삶은 쇠퇴하고 사적인 영역은 담벼락처럼 높습니다. 사적이라는 말 ‘private’는 라틴어 ‘privare’에서 왔는데, 이는 박탈당한 ‘deprived’라는 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적인 개인주의는 고대에선 ‘박탈당한 느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기보다 나와 너로 사는 일에 분주한 인생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흐지부지되고 헌신과 수고의 짐을 지던 이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을 갈등은 평등공동체인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이 부족한 때문은 아닐까요? 갑이 을을, 을이 갑을 불신하여 서로가 협력하지 않는 사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의미로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평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싸워가야 합니다. 너와 나의 사적인 개별성을 존중하되 한편 공적인 우리로서의 공간과 삶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박탈당하지 않도록 공동의 소유, 공동의 집, 공동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바깥으로 열려 있음을 배웠습니다.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밖도 교회이며 안과 밖이 긴밀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단속하고 결속하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공동 우물에 독극물을 버리고, 자기들만의 우물로만 호의호식하던 이들은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큐메니즘이 없는 교회는 우물이 없는 마을에 사는 꼴입니다. 나눔과 평화, 참자유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비극 복판에서 명랑하기

누가복음서 8:52-55a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후회와 걱정, 괴로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생각들. 우울한 소식들의 중심에 ‘교회, 목회자, 교인’들이 거론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덩달아 예수님까지도 욕을 듣고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요. 본문도 비웃음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비극 가운데서 명랑함을 유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는 일만 남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었다고 단정하고 여지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희망을 품고 명랑한데, 사람들은 우울하고 비극적입니다. 아이가 죽음에서 깨어날 순 없을까요? 잠에서 깨어나듯 기지개를 켜면서요. 그래서 눈떠 뛰고, 달리고, 깔깔거리고, 까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하게 무겁고, 엄숙한 교회는 명랑하기를 멈췄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슬픔만이 가득하고, 낭패와 실의와 좌절, 패배감에 축 처진 어둠이 뻣뻣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다에 찾아가 서핑을 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른 '데일 웹스터'란 선수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1만 4,641일 동안 파도를 탔어요. 하와이섬의 전통에 따라 '파도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서핑을 시작합니다. 굶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명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

이 비극 복판에서 주님을 기억합시다. 희망을 찾고 웃음을 머금으시길.

지구의 고통

창세기 1:1, 3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 만드신 이 세계, 지금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좋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돌보고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창조질서의 어울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인류만의 발전을 위해 지구상 모든 자원을 낭비하였고

땅과 공기와 물을 오염시켜 결국 기후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는 자원을 낭비하고 오용한 부유한 나라보다

자원을 탈취당하고 빼앗긴 가난한 이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이 멸종돼 사라지거나

살아갈 터전을 잃어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 우리 인간의 욕망이 지구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든 후에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소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기독교단 | 나가오 유키

고단한 길 너머

스가랴서 9:12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네게 두 배로 갚아 주겠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에게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인천공항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기도 하며 빼앗긴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겠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그리 멀지 않은 봄에 꼭, 꼭, 일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부당한 시간의 혹독함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 있어 숨을 이어갑니다.

개신교 대책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한 시간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만나면 반갑고 든든한 동지가 되어
해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겐 하나님이십니다.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자존심입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어
이젠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길 너머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조합 지부장 | 김계월

내전과 폭정

잠언 29:2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며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미얀마 민주화의 길을 돌아봅니다.
청년 학생 그리고 노인과 여성 어린이에게까지
군부는 잔혹한 학살의 총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여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수천 명이 강제 구금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나그네 되어 국경지대를 떠돌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이 못된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줄 모릅니다.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의 존엄과 인권은 박탈당한 채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아시아는 민간 정권이 군부 통치로 회귀하거나
탐욕에 심취한 경찰과 군 엘리트 자본가들이 결탁하여

권위주의 독재를 재현하는 국가들이 다시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비단 미얀마뿐 아니라 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스리랑카
·홍콩·필리핀 등 아시아 공동체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이야기이며 아시아 민중이 겪어온 수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투쟁의 길을 나서는
미얀마 민주시민들을 위해 두 손과 마음을 모읍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민주화의 여정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여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으로
이 길에 동행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갈라지고 상처 난 아시아 땅에서 탄식하는 이웃의 얼굴이
곧 나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세계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이 뜻을 함께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곳에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시아 공동체의 상생과 평화 실현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노란리본

요한복음서 14:5-7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주님!

그 날 이후로 제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세월호 노란리본이 보입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면

세월호 노란리본은 그 삶의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과는 다르게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늪에 빠진 인류로 인해

지구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그 결과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월호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더불어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원고 이창현 엄마 | 최순화

십자가, 사랑의 길

마태복음서 27:46, 50, 54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작고 큰 갈등으로 인해

폭력과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소리에 불안합니다.

한반도 남과 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아직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무기 경쟁과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대감을 부추기고 대립과 경쟁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기 위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간구합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인정하며,
모호한 것을 참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점점 사랑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가족, 산업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
성폭력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성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 순간에도 너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여혜숙

부활 전 토요일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기 위해
죽음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과 돌이킴의 시간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밤을 지나
“다른 모습”(막 16:12)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후 세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혼란입니다. 교회도 우리 사회도 나아가 전 지구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 속에서 허둥지둥 갈팡지팡하였지만 곧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었습니다. 기후 재앙이 오기까지 문명 중심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소외되고 약한 이를 챙기며, 백신을 골고루 분배하고... 우리는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것이 당장 실현되어 현실이 되지 못함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 삶의 구조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엎을 용기와 결심도 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게 되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갈등과 혼란을 명료하게 정리해 줍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바로 지금이 이웃을 위해, 자연을 위해 나의 공간을, 우리의 공간을 열어주고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새 세상을 위해 결심하고 행동할 “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 난 생명의 길로 가야 할 때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길, 생명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2022년 2월 14일 초판 1쇄 인쇄

2022년 2월 17일 초판 1쇄 발행

역 은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펴 낸 이 이흥정

펴 낸 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706호

편집책임 강석훈 서범규


전 화 02-743-4471

팩 스 02-744-6189

디 자 인 동방기획(02-2277-0365)

Copyright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상집 사용 외에 다른 목적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바라는 전환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 '이 일' 때문에
곧 하나님의 길과 자연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